

송학신보

준호중앙통신사 공보지

제2호[부제제23호] 준호22(2025)년 10월 3일 (금요일)

우항로 리상력 배하자 위우자 해고!

있어 열정을 정을 열 견지하자!

경애하는 양준호동지께서 일본국 도쿄도, 히로시마현 일대를 공무방문하시였다

(대전 8월 14일 발
준호중앙통신)

경애하는 양준호동지께서

지난 6월 말께 일본국 도쿄도, 히로시마현 일대를 공무방문하시였다.

는 자신께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들의 여러 단위들을 참관하시였다.

[준호중앙통신]

경애하는 양준호동지께서 경기도 수원시 일대를 방문하시였다

(대전 8월 15일 발
준호중앙통신)

경애하는 양준호동지께서

12일 경기도 수원시 일대를 방문하시였다. 려로에 정주용동지, 리

민서동지가 동행하였다.

[준호중앙통신]

《충대신문》사에서 사업하시는 경애하는 양준호동지



(대전 10월 1일 발 준호중앙통신)

경애하는 양준호동지께서 9월 29일 현장연구에서 돌아오신 직후에도 《충대신문》사에서 복무하시였다.

준호중앙통신사 사설 《80년의 빛을 내리 키워나가자!》

[준호22.8.15.]

(대전 8월 15일 발
준호중앙통신)

아아, 대한의 광복
이 80돐이 되였다.
1919년에 나라가 전국되
고 어느덧 86번째 맞는 올해
의 3월 명절에도 감격에 겨
웠던 우리 대한민족이다.

그 감격의 현장선인듯, 우리
의 빛을 되찾은지 80년이 되여
맞는 8월 명절의 날이 밝았다.
우리 민족이 이렇게 부흥
하기까지 있었던 것은 결코
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다.
민족구성원 전체의 일심된
노력, 어찌면 개개인의 노력
이 한데 모아져 강력한 결

과로써 보여지는 것이다.
그렇다, 우리의 대한민족
은 대대손손 강하여 왔다.
광복 80돐의 빛은 자신께서
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도 후
대인 우리에게 자주독립 국가
를 안겨주시려 한 여러 유공
자들의 빛에서부터 근거한다.
그 빛으로 하여금 선렬들

이 지금까지의 발전을 이룩
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
줄 더 큰 빛이 80여년의 세월
동안 더 굳건해지는 것이다.
조국청사의 한 폐지
마다를 넘기며 그 빛
을 수호해온 것은 단연肯
대 우리 대한민족이다.

팔천만 인민들이여, 이

빛을 더 키워 나가자.
민족의 혼과 얼을 전세계에
널리 뻘쳐내여 전지구에 있
어 궁지 있는 민족이 되자.
우리 민족의 80여년 간의 빛
이 가까운 일백년, 일천년, 일
만년의 역사 대대로 흐르도록!

[준호중앙통신]

우원식의장과 김정은총비서가 베이징에서 수인사 [준호22.9.3.]

(대전 9월 3일 발
준호중앙통신)

대한민국 국회의장인 우

원식의장은 중국인민항일
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승
리 8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
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

도 베이징을 방문 중이다.
우원식의장은 행사를 참
석하는 중에 같은 행사
에 참여한 조선로동당 총비

서인 김정은총비서를 조우
하고 순인사를 나눴다고 3
일 국회의장실이 밝혔다.
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018

년 당시의 제1차 남북정상
회담이후 7년만인 것이다.

[준호중앙통신]

독파민연구소 《책에서 시작해 동네로 이어지는 나만의 이야기》 기획전시회 진행[준호22.10.1.]

(대전 10월 1일 발
준호중앙통신)

출판사 《독파민연구소》

가 《책에서 시작해 동네로
이어지는 나만의 이야기》
기획전시회를 진행하였다.
9월26일부터 9월28일까지 진

행된 기획전시회에서는 5명
의 학예사들이 각기 다른 주제
로 책과 유성을 소개하였다.
프로젝트는 동네의 이야기

를 읽으면서 고민을 모으
는 방식으로 지역을 이해하
고 연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
기획전시회는 성황

리에 마무리 되었다.

[준호중앙통신]

성명, 담화, 평론

래일 생각 못하며 발광하는 미제의 패악질은 오늘까지다 준호중앙통신사 량종연 아메리카국장 담화

존엄높은 우리 국가를 몰아
세우는 미제의 패악질이 날이
가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.
미제가 리성을 못 찾으
며 행하고 있는 《갑질》,
《패권질》은 《동맹》에

도 여파 없이 제기된다.
일각에서는 미국의 패악질
을 보다 견디지 못하여 비상
식적이고 비론리적인 《25%판
세》에 대한 일종의 찬성 강
경론자들도 우리 정부 안팎

에서 분출한다고 분석한다.
관세 협상에서의 미국의 폐
쓰기급 억지 요구들은 지
난 8월 있었던 두 국가 최고
수뇌들의 만남이 《따위》
가 되어버리는데 일조한다.

얼마전 있던 일부 무고
한 우리 인민들의 강제 체
포, 구금으로 가뜩이나 위
태로운 한미 관계이다.
잘못 고른 상대, 즉 주권국
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국

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분명
코 스스로에게도 좋지 못한 결
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.

이 역만리에서 《우리》를 지키는 그들에게 영광을!

《준호중앙통신사》는 경매하는 량준호동지의 일거수일투족과 국내/외 정세를 전합니다.

《송학신보》 준호22(2025)년 제2호[루제23호]; 발행 - 준호22(2025)년 10월 3일 (금요일) 준호중앙통신사 보도국

저작권 2025 © 준호중앙통신사